



## 보성인재

# 20여년 지역 지켜온 인쇄기자재 전문업체

대전시 동구 삼성동 인쇄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보성인재(대표 강구태)는 지난 20여년간 지역인쇄업계를 지켜온 대표적인 인쇄기자재 전문 공급업체이다.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은 지난 87년이지만 그 이전에 직접 인쇄사를 경영한 경험을 갖고 있는 등 인쇄업계와 인연은 30년에 달한다.

보성인재의 강구태 사장은 지난 20여년간 인쇄관련 분야에 서만 열과 성의를 다하여 사회 발전과 더불어 성장해 왔음을 자부하면서 주요 고객들로 인쇄사, 신문사, 공공기관 발간실, 출판사, 기획사 등과 동반자 관계로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성인재는 설립 초기에 청타활자, 청타기를 비롯, 일본 료비사의 인쇄기, 미쯔비시 제판기등을 지역 인쇄업계에 판매해 왔으며 설립 이후 10년간 누계 1,000여개에 이르는 고객사에게 공급해 왔다. 보성인재가 돌보인 계기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97년 이후였다. 다른 업체들이 무너지고 수요처가 급감한 가운데 보성인재는 그동안의 민수 시장에서 대전 지역에 위치한 군수부문의 인쇄로 관심을 돌렸

다. 위기의 순간에 시도한 결단이었다는 강 사장은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는 당시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들에게 신뢰를 쌓아 온 것을 인정받는데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 단순한 판매 대리점 벗어나 지역 인쇄업계 동반자로

수도권에 비해 시장규모가 적은 대전·충남 지역 인쇄업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강 사장은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 후지제록스, 건설상역, 한일듀프로 등과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관계를 맺고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로 흩어져 있는 충청권역의 인쇄업계에도 적극적인 판매 및 지원 활동을 벌였다.

보성인재가 벌인 대고객 지원활동은 생각에 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것이 많았다. 많은 제조사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서비스 인력을 두고, 지역 고객사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함께 애쓰는 동반자가 되고자 한 것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물류 및 자재 창고를 확보해서 고객들이 사용하고 난 중고 인쇄기 및 주변기기 등을 인쇄거리 내에서 수리를 끝내고 신속하게 돌려보내는 한편으로 해외로 수출이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대수를 기준으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다가 자칫 고철 값으로 장비를 넘겨야만 하는 고객사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 인쇄 재료 직접 생산, 지역 현안에 적극 참여

보성인재는 마스터에 칭액을 직접 제조, 공급해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한편으로 일본으로 역수출을 한 실적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인쇄재료 공급사들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인쇄업계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가 결정적이었다고 강 사장은 말한다.

최근 대전·충남지역 인쇄업계의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된 대덕특구 인쇄출판산업단지추진조합에도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강 사장은 “지역 인쇄업계의 10년, 20년 후를 좌우하게 될 대역사인만큼 업체 개별적인 상황이 다르다고 해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며 “인쇄사들이 주역임은 분명하지만 기자재 유통업체와 종이 유통업체등 관련업체도 범인쇄업계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양한 제품군 적시에 공급, 고객과 함께 호흡

현재 보성인재는 오프셋인쇄기 및 디지털인쇄기, 출력판 장비, 무선제책기, 재단기, 접지기 등 제책장비일체와 인쇄재료, 인쇄기수리등과 함께 마스타 에칭액을 자동생산공장을 통해 생산, 공급하고 있다.

보성인재를 단순한 판매 대리점이나 유통회사라고 보아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직접 생산을 하는 한편으로 수리와 정비를 통해 해외수출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유통업체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인쇄관련 전시회인 KIPES에도 적극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고객을 만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차별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주요 정부부처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대전·충남지역 인쇄업계의 기대감과 함께 보성인재의 역할도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20여년의 세월을 통해 증명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 ▶ 철저한 A/S를 펼치는 보성인재
- ▼ 별도의 기자재 창고로 신속한 수리와 수출도 하고 있다.

